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4월 9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16장 11-19절

설교제목 : “그가 나오기까지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대속죄일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지켜지는 절기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 중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갑니까? 세 번입니다. 연속으로 세 번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은 후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습니다.(레16:11) 왜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습니까? 속죄제의 제물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레4:3) 그 다음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향을 피워서 가지고 휘장 안 즉 지성소 안에 들어가 언약궤를 보지 않고, 옆으로 들어가서 연기로 언약궤를 가리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첫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레16:12-13) ‘여호와 앞에 분향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함을 보여줍니다. ‘향연’으로 번역된 ‘아난’은 보통 ‘구름’이지만, ‘연기’란 뜻도 있습니다. 속죄소가 구름과 같은 질은 연기에 덮여 감추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감춘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온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워서 제사장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잡은 수송아지를 피를 가져다가 연기가 자욱한 언약궤에 수송아지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때 지성소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레16:14)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에 뿌립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를 의미합니다. 속죄소 동쪽이라 함은 정확하게 속죄소 덮개 위의 동쪽입니다. 동쪽은 성소의 입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속죄소에서 조금 떨어져 속죄소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피를 일곱 번 뿌립니다. 이것은 속죄소에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앞에서 피를 공중에 뿌려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피를 일곱 번씩이나 뿌리는 것은 속죄 행위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인에게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7일 만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살아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두 마리 염소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 주에 자세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두 마리 염소를 각각 제비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정합니다. 제비뽑기를 위해서 각각의 염소가 정해지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도살하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세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레16:15)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속죄소 덮개 위의 동쪽 면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에서 조금 떨어져서 속죄소를 바라보고 피를 뿌립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을 들어갑니까? 모두 세 번입니다. 그러나 연속적인 과정이기에 한번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순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관심을 갖는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오면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확고하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30분 안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백성들이 숨죽입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 대제사장이 안나옵니다. 백성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도대체 대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리나 안들리나 귀를 쫓긋 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의 발이 보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나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죄용서 받음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히9:12) 인간 대제사장은 연기로 자신을 가릴 필요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연기로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대속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이란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향으로 가릴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대속죄일 날 언제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됩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대제사장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4:25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롬4: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쫓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더불어 고린도전서 15:7을 봅시다. **고전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십자가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나타난 부활의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옴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았음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온 우주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 16:12-13)
- 2)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 16:14)
- 3)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 16:15)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